

시험일정 확정... 공시생 ‘걱정 또 걱정’

이달 30일부터 경찰·공무원·소방 국가시험 예정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에 “연기” “강행” 엇갈려

제주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양모(28)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자가 제주에서도 발생한 상황에서 수백명이 밀집해 치러야 하는 시험장에 갈 걱정 때문이다.

양씨는 “감염 우려에 집에서만 공부한 지 석달 쯤”이라며 “시험이 또 연기되도 걱정이지만, 시험을 보러 갔다 만약 감염이라도 된다면 (취업)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공무원 시험이 이달부터 재개되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하 공시생)들이 또다

른 고민에 빠졌다. 시험 일정이 재개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감염 우려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공시생들이 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시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월 22일 변경된 국가·지방 공무원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필기시험은 각각 9월 26일, 7월 11일이며 지방공무원 7·9급은 예정대로 각각 10월 17일, 6월 13일에 치러진다. 경찰·소방 공무원 필기시험은 각각 5월 30일, 6월 20일이다. 하지만 주춤하던 감염세가 최근 재확산되면서 시험을 재연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3년째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34·제주시 삼도 1동)씨는 시험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프면 약을 먹고서라도 시험을 치르고 싶은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변경된 시험 일정이 발표된 이후 강행과 연기를 각각 주장하는 글 12개가 올라왔다. 특히 ‘5·6월 예정돼 있는 각종 국가고시 및 전문 자격증 시험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글은 17일 현재 9994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다가 공시생들은 뒤바뀐 시험 일정 때문에 합격 문이 좁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통상 4월에 국가직 시험을 먼저 치른 뒤 6월에 지방직 시험을 치르는데, 올해는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공시생 상당수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방

직에 모두 응시해 국가직 시험을 잘 치렀다 싶으면 지방직은 응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방직의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올해는 처음부터 지방직으로 대거 몰려 합격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올해 제주도 지방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315명 선발에 3358명이 지원해 평균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13명을 선발해 3424명이 지원했던 2019년의 8.3대 1보다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로 5년째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강모(30·제주시 도남동)씨는 “아차피 시험이 미뤄져도, 강행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며 “이런저런 이야기에 흔들리기보다 지금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팽생이모자반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내 해변에 밀려들고 있다. 17일 팽생이모자반이 가득 밀려든 제주도 이호해수욕장 모습. 강희만기자

‘바다의 불청객’ 팽생이모자반 또...

도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항공·드론 활용 예찰 강화

‘제주바다의 불청객’ 팽생이모자반이 제주해역에서 발견되면서 처리난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연안으로 유입이 예측되는 팽생이모자반을 효과적으로 예찰하고 수거·처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행정시, 국립수산물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12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위성, 항공, 드론 등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하고 각 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규모 유입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팽생이모자반 피해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으로 팽생이모자반 제주연안 유입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도는 예찰을 담당하는 국립수산물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국립수산물과학원 제주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 함께 관광선 등을 추가 투입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해양환경공단이 보유한 청양선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운영 중인 어항 제주1호가 해상 수거에 나서며 행정시는 공공근로인력과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투입해 해변으로 밀려온 팽생이모자반을 중점 수거한다. 수거한 팽생이모자반을 필요 농가에 무료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제주지역 팽생이모자반 수거 실적은 2016년 2441t, 2017년 4407t, 2018년 2150t, 2019년 860t 등이다. 백금기기자

“학교 정서지원공간 마련” 교육청, 전국최초 TF팀 발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5개 학교(초 2·중 2·고 1)를 선정, 학교 내 정서지원공간 시범운영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서지원공간은 학교 안에 정서위기학생이 스스로의 정서를 돌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심리안정 및 신체 보호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자국과 개인의 자존감 회복기회 제공을 통해 학교(학급) 적응을 돕는 정서 돌봄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서지원공간 시범운영 지원 TF팀을 구성했다. 송은범기자

■ 전교조 제주지부, 교원 1143명 대상 설문 10명 중 6명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학교서 무기력한 아이들
제도적 차원에서 대책 필요”

제주지역 교원들이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에 교육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지역 교원 1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현장 교원들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안 조사’ 결과를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공개했다.

우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60.9%가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육 활동 보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이 34.4%로 뒤를 이었다.

이러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국가(교육부·교육청)가 해결해야 할 정책 1순위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수업 시수 감축’이 48.1%로 가장 높았고,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 교육 철재’가 40.8%였다.

교실 교육활동에서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60%가 ‘과중한 행정업무’라고 대답했다. 이어 수업에 집중

하지 못하는 학생(43.7%)을 꼽았다.

이를 학교별로 보면 유치원은 과중한 행정업무(85.7%)에 이어 과밀학급(57.1%) 문제를 답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40.9%), 과밀학급(40.7%), 과중한 행정업무(39.9%)가 어려운 점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 1순위가 학생의 학습 무기력(40.9%), 2순위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40.3%)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학생의 학습 무기력(45.3%)보다 과중한 행정업무(52.1%)가 더 힘든 과제로 답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과중한 행정업무(86.4%), 학생의 학습 무기력(31.8%) 순이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습 무기력이 증가하고 수업 중 자는 학생의 비율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학교가 입시를 위한 과도한 경쟁 속에 패배감만 가느는 곳이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경총의 BCT노동자 파업중단 요구는 몰상식”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제주지역 별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들에게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이번 파업이 안전운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몰상식하고 적반하장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BCT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올해 2월부터 경총 회원사인 ‘삼표, 한라, 쌍용’ 시멘트 3사와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에 따른 협의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들 3사는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파업의 원인이 시멘트 3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따르면 협로와 오지의 경우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

의해 가산율을 결정하고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BCT 노동자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한 것이지 제도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총 회원사인 시멘트 3사가 배짱 영업을 하는 바람에 파업이 장기화 된 것이라며 제주경총은 당장 회원사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상공회의소

2020 제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훈련 본격시행!

지역특화 교육훈련과정을 통한 중소기업과 취업희망자의 경쟁력 지원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여러분의 業(업)을! Up(업)!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육훈련 계획

대 상	교 육 과 정 명	인 원	교육시간	개설시기	훈련기관
구직자	실내건축설계를 위한 BIM 및 3D프린팅 실무자 양성과정	20	120	7월~8월	제주관광대학교 T. 754-5801
	웨딩이벤트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15	186	7월~8월	
재직자	SNS를 활용한 직무능력 향상과정	20	8	5월	
	뉴미디어마케팅 전문가 직무능력 향상과정	20	8	5월	
	건축도장시공 직무능력 향상과정	20	16	5월~6월	
	치과진료비 심사청구 직무능력 향상과정	15	16	7월~8월	

대 상	교 육 과 정 명	인 원	교육시간	개설시기	훈련기관
재직자	제주 스마트 MICE 전문가 향상과정	15	16	수시	제주한라대학교 T. 754-5801
	제주안전도시 재난응급 향상과정	25	16	수시	
	중장년 1인 크리에이티브 과정	15	8	수시	
재직자	냉동설비수리	15	16	6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T. 754-7156
	냉동공조에너지관리	15	16	6월	
	특수용접고급	15	16	수시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CAD실무자동화	20	8	6월~9월	

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EL. 757-2164 FAX. 757-2168 | 홈페이지. http://jejuhrd.or.kr